

코로나19 장기화 전남 관광 ‘반토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전남 주력업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선 7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계획했던 전남도의 제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비대면 마케팅을 비롯해 소규모, 개별 여행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위축된 관광시장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방문 관광객은 299만명으로 전년 동월(173만명) 대비 42.1% 감소했다. ‘반토막’ 수준으로 지난 3월 271만명, 4월 238만명, 5월 381만명이 다녀갔다.

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도내 축제 115개 가운데 3-8월 예정됐던 74개 축제가 취소 또는 연기됐다. 전남 여행업계는 그 피해액을 54억원(여행취소 1천780건, 취소인원 1만8천295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비교적 코로나에 안전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예상울 크게 넘어선 참혹한 현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내지 내년 초를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관광 마케팅의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착수, ‘대반전’을 꾀하고 있다.

청정 이미지 불구 방문객 42% 줄어...외국인 70% 급감
무안공항 국제노선·크루즈 올스톱, 지역축제·행사 섀다운
방역과 함께 안전여행·섬자원 활용 등 맞춤형 마케팅 구상

전 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의 전남 방문은 더욱 줄어들었다. 5월 기준 3만678명에 머물러 전년 동월(9만9천337명) 대비 무려 69.1%(6만8천659명)가 빠졌다. 특히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대유행한 3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97% 감소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관광객 급감에 따라 관련 산업은 올스톱됐다. 무안국제공항의 8개국 16개 국제노선 모두가 지난 3월6일부터 운항 중단됐고, 올해 4-7월 예정된 도내 크루즈 기항 4항자도 전면 취소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일선 시·군에서도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섀다운 되면서 관광산업

오도기도 못하게 된 해외여행의 잠재 수요까지 국내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급속한 여행수요 확산에 대비해 기본적으로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안전과 위생을 기반으로 한 관광환경 조성에 팔을 걷었다.

중장기 방안으로 ▲방역과 함께 하는 안전한 여행 ▲섬 자원 등을 활용한 아웃도어 여행 집중 ▲새로운 일상 관광 환경 맞춤 관광개발 및 특화상품 발굴로 국내 관광 선도 등을 내세웠다. ▶2면에 계속 /임채만기자

文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새벽 2시께(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께) 화상회의로 열리는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

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는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도 참여한다. /김진수기자

한전공대 내년 5월 착공...2022년 3월 개교 ‘빠듯’

도, 교사 확보 등 로드맵 발표...착공 후 공정 10개월 ‘축박’
개교 맞추기 위해 신정훈 의원 발의 예정 ‘특별법 통과’ 관건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가 2021년 5월 착공한다. 하지만 착공 후 개교까지 불과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아 기간내 공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방안과 착공 시기를 내년 5월개로 결정하는 등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1월 한전공대 부지가 확정된 후 한전과 한전공대 교사 확보방안

을 놓고 그동안 협의를 거듭해왔다.

개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본 교사는 한전공대 교사 건축 계획 중 1단계 3만 1천㎡(전체는 1·2·3단계 14만 6천㎡)에 일부분(4천㎡, 지상4층 지하1층)을 2022년 3월 개교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도 일부 임대교사로 활용한다. 1단계 건물 전체 건축도 내년 6월까지 설계 등을 마치고, 7월 착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 임

대교사 활용에 따른 연구원 일부(229명 중 79명)의 근무공간의 경우 한전본사, 인근 건물 임대 또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부지 내 가설시설 건축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한전은 또 캠퍼스 1단계 건축 준공 계획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에서 2023년 7월로 단축하고, 2023년 3월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임대교사 사용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교사설립 및 임대교사 활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방식은 개교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함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10월 안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신 의원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 주택은 부영CC의 영입을 이달 중 종료하고, 10월부터 한전공대 부지 내 골포장의 잔디·수목을 이식해갈 계획이다. 부영CC는 영업 종료에 따른 직원들의 경우 부영에서 운영한 순천, 무주 등 인근 골포장에 재배치된다.

지엠에 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은 “전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한전공대 건축 인허가 및 1단계 시설 임시사용승인 등을 짧은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봄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코로나19 사태로 마물까지 우물한 시기지만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7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일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김대이기자

광주 코로나19 일일 1-2명...추석 앞두고 방역 ‘고삐’

정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 주말께 발표”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일주일째 3명 이내로 안정세에 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시장은 1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동안 3명 이내로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재생지수도 0.45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지수는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사람의 수로 지난 10일 준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1.01에 달했다.

이날 지역감염으로 0명(오후 6시까지)이 발생했으며, 11일 3명, 12일 2명, 13일 3명, 14일 1명, 15일 2명, 16일 1명을 기록했다. 준3단계 거리두기를 한 차례 연장시킨 10일 이후부터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확진자 0명을 기록했던 지난 8월10일 이후 한달 여 시간이 지났지만 꾸준히 1명 이상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쉽게도 일일 확진자 0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한인 20일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집합금지 대상의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추석을 앞둔 이번 주말이 고비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추석 전에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485명으로 유증상 241명, 무증상 244명, 감염원 불명은 27명이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할 지를 오는 주말께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추석을 앞둔 시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가 결론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한 추석 연휴기간에 휴양지의 숙소 예약이 마감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대유행이 있었던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김대이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